

평화나눔의 시선

2026.03.11. | 제26-01호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 레오14세 교황의 첫 평화담화문,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무장하지 않은 평화, 무장 해제시키는 평화, 겸손하고 항구한 평화입니다.
(레오 14세, 첫 교황 강복 중에서)”¹⁾**

2025년 5월 8일, 로마 바티칸 베드로대성당의 굴뚝에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프란치스코 전임 교황의 선종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콘클라베를 통해 제 267대 교황이 선출된 것이다. 발코니의 문을 열고 등장한 새 교황이 바티칸 광장에 모인 청중과 세계를 향해 전한 첫 마디는 바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La pace sia con tutti voi)”였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건넨 첫 마디였던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20,19)와 긴밀히 닿아 있다. 또한 평화가 그리스도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명백히 보여 주는 선포인 동시에, 산발적으로 확대되는 세계 전쟁과 불평등한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선언이기도 하다.²⁾

1) 레오 14세 교황. (2025). 레오 14세 교황의 가르침: 평화가 모두와 함께. 서울: 가톨릭출판사.

2) 손서정. (2025). 평화를 향한 여정으로서의 WYD에 관한 고찰. 가톨릭청소년교육사목연구, 5, 35-97.

특히 새 교황은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선택하였는데, 여기에는 18세기 말에 재위한 레오 13세(1873-1903)의 행보를 이어가고자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레오 13세가 즉위한 시기는 전반적이고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불러온 산업혁명 이후였다. 그는 자본의 노예로 전락한 비참한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교회의 입장을 밝히며, 가톨릭교회의 첫 사회회칙인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1891)』를 반포하였다.³⁾ 이를 통해 인간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며, 인류의 평화와 공동선을 추구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였다.⁴⁾

레오 13세가 『새로운 사태』를 반포한 지 134년이 지났음에도 레오 14세가 레오 13세의 행보를 이어 가고자 한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상황이 설명해준다. 전례 없이 극대화된 자본주의와 최첨단 정보화 사회에서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에서 확산되는 폭력을 우려하며 ‘산발적인 제3차 세계대전’으로 표현했던 전쟁, 테러, 박해의 현상은 점점 더 확대되며 수많은 인명을 빼앗고 있다.⁵⁾ 인류의 근원적인 평화를 극심하게 침해하며 확산되는 전쟁은 각국의 안보불안을 증대시키며, 세계는 다시금 재무장과 군사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지금 인류는 제3차 세계대전을 마주하는가?!

“모든 종류의 불평등,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
환경 파괴, 허위 정보로 의도적으로 조성된 혼란, 모든 유형의 대화 거부,
군수 산업에 쏟아부은 막대한 재정 지출...이 모든 것이 합쳐져
인류 전체의 존재를 위태롭게 만듭니다.”⁶⁾

3) 레오 13세 교황. (1891). 레오 13세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https://www.cbck.or.kr/Documents/Pope/400338?gb=title&search=새로운%20사태>

4) 김명현, “레오 13세와 비오 11세의 노동에 대한 가르침”, 『가톨릭신학』 14, 2009, 187-229.

5) 프란치스코 교황. (2016). 제4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2016년 1월 1일). 「무관심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룩하십시오」, 제2항.

프란치스코 교황. (2016).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제25항.

6) 프란치스코 교황. (2024). 제58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2025년 1월 1일).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제4항.

<https://www.cbck.or.kr/Documents/Pope/20242527?gb=title&search=%EC%84%B8%EA%B3%84%20ED%8F%89%ED%99%94%EC%9D%98%20EB%82%A0>

사실 세계는 이미 전쟁 중이거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전면전으로 확장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차로 접어들었다. 국제학계는 양국의 합산 사상자를 총 180만 명으로 추정하며 올 봄까지 200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⁷⁾ 더불어 2023년 하마스 이스라엘의 대립은 가자전쟁과 민간인 학살로 확대되어, 7만여 명의 팔레스타인 사망자를 발생시켰으며 이 중 80-90%가 어린이와 여성들로 구성된 민간인으로 추정된다. 가자지구에 투하된 3500도 온도의 열압력탄은 희생자의 뺏조각도 남기지 않아 유족이 주검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드는 만행으로 이어졌다. 미국과 유럽은 이러한 무기들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가자에서 행해지는 학살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국제적인 집단학살임을 보여준다.⁸⁾

또한 각국은 이러한 상황을 군비확장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여 안보담론을 재부상시키며 군비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사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던 전 세계 군비 지출은, 2024년 총 2조 7천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하여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⁹⁾ 특히 세계 제1의 무기생산국이자 전 세계 무기 수출의 43%를 점유하는 미국은 거대한 군사자본을 토대로 미중간 패권대립의 위기를 극복하며 재성장할 기회를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국가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선봉을 자처해왔지만,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 아래 그동안 축적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기존의 규범과 질서를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일본은 점진적인 우경화 기조 속에서 다카이치(高市早苗) 내각 출범 이후 안보·헌법 관련 제도의 재검토와 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월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의 대승을 기반으로 정책 추진 동력까지 확보하여, 평화헌법의 해석과 방향성에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과 함께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보불안은 분단된 한반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5위이고 세계 10위의 무기수출국으로, 군사비 지출액만 이미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를 능가한지 오래이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핵기술을 점점 진화시키며 보유한 핵탄두의 숫자를 늘려가며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어가고 있고,¹⁰⁾ 대한민국도 미국의 승인 하에 핵잠수함 건조를 모색하고 있다. 무기의 축적은 상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정당화되지만, 결코 정당하게 사

7) Jones and McCabe. (2026). Russia's Grinding War in Ukraine - Massive Losses and Tiny Gains for a Declining Power. (<https://www.csis.org/analysis/russias-grinding-war-ukraine>, 입력일: 2026-01-27)

8) 김지훈. (2026). 이스라엘 '폭발 온도' 3500도 열압력탄 썼다...주검도 없이 3천명 증발.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ka/1244756.html>, 입력일: 2026-02-13).

9)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25). SPIRI Yearbook 2025. (<https://www.sipri.org/yearbook/2025>)

10) SPIRI. 같은 자료.

용되지 않던 지난 세기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무기는 쌓여가고 오히려 불안과 공포는 한 치도 줄어들지 않는 역설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

레오 14세 평화담화문의 예견과 현실화

“평화를 먼 이상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평화가 부정되거나 심지어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¹¹⁾

생명은 경시되고 평화가 점점 더 요원해져가는 세계 정황 속에서, 가톨릭교회가 매년 1월 1일에 발표하는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은 더욱 귀추를 주목시켰다. 특히 2026년 평화담화문은 레오 14세 교황 즉위 이후의 첫 담화문으로, 1963년 요한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강조한 “완전한 무장해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교황은 담화문을 통해 군사력과 핵 억제력이라는 발상은 세력균형에 따른 국가의 정당방위 논리를 구축하지만, 국익에 매몰된 물리적 폭력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번 담화문이 나온 직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온 ‘산발적인 제3차 세계대전’은 또 다른 양상으로 확장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고, 이후 국가 통치와 석유사업권 통제에 관여할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로 베네수엘라 민간인을 포함한 다수 인원이 사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미국인 사상자가 없음을 자랑했다. 특히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베네수엘라 야권지도자인 마차도는 그런 트럼프의 행동을 용기 있는 리더십이라고 칭찬하며 자신의 노벨평화상을 트럼프에게 전달하였다.¹²⁾ UN과 많은 서방 국가들은 트럼프정부의 국

11) 레오 14세 교황. (2025). 제5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2026년 1월 1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향하여」

<https://www.cbck.or.kr/Documents/Pope/20250606?gb=title&search=%EC%84%B8%EA%B3%84%20%ED%8F%89%ED%99%94%EC%9D%98%20%EB%82%A0>

12) 박성민. (2026). 베네수 야권지도자 마차도, 트럼프에 진품 노벨평화상 전달. [출처: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6021600071>, 입력일: 2026-01-16)

윤연정. (2026). 노벨평화상 마차도 “내가 베네수엘라 이끌 적임자”...존재감 부각 [출처: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38516.html>, 입력일: 2026-01-07)

전민규. (2026). 혼돈의 베네수엘라...노벨평화상 마차도 “차기 지도자는 나”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965>, 입력일: 2026-01-08)

제법 위반을 규탄했지만, 관세와 안보 문제에 닥칠 후폭풍을 우려한 국가들은 표현을 절제하는 이중노선을 걷고 있는 상황이 병존한다. 유사한 비극은 중동에서도 발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AI에 의해 설계된 작전계획에 따라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고, 그 결과 그저 평소처럼 학교에 갔던 초등학생 16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러한 최근 상황은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했던 자유세계의 작동방식에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의 힘에 따라 인명의 무게가 달라지고, 더 큰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폭력적인 방식을 지지하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당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중 잣대로 세상을 재는 현실의 모습은 상대주의적으로 변화하는 정의와 평화의 모순된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근원적인 가치로 여겼던 존엄과 평화의 방식을 무너뜨리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상과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과의 괴리는 인간적인 무력감을 느끼게 만든다. 이런 틈 속에서 무장과 안보 개념만을 주입하는 언론과 교육의 조직적인 선동은 점점 거세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지속적으로 방관한다면, 20세기에 힘들게 얻은 교훈과 평화의 일상은 더욱 쉽게 파괴되고 그 피해함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평화의 근원적인 가치를 선포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톨릭교회의 종교적 역할과 그리스도인의 책무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의 책무, 평화의 실현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요한 18,11; 마태 26,52)”

그리스도의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은 평화였고, 그렇기에 상처와 고통의 신비 속에서 부활이 가능했다. 구체적인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평화는 항상 비폭력적인 투쟁이었다.¹³⁾ 그러나 거짓 평화는 명분으로 위장하고, 단순화된 논리로 인류가 쌓아온 평화의 문화에 균열을 일으킨다. 군사주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군비경쟁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이는 폭력과 전쟁의 원인이 되며 더 큰 군비확장과 수많은 죽음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태가 확산된다면 자신도 죽음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폭력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 놓여있다.

13) 레오 14세 교황. (2025). 같은 담화문.

무엇보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평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행동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듯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빛을 찾아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를 상기해야 한다. 사랑과 비폭력적 저항으로 희생된 예수의 모습을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매일매일 일상에서부터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양심에 따라 성찰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내려놓아야 할 무기는 전쟁무기와 같이 실체가 있는 무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 내에 축적된 경제적·구조적 폭력과 암묵적으로 내재된 문화적 폭력까지 무기에 포함된다. 타자와 다른 집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내면의 무기를 내려놓음으로써, 열린 마음과 겸손으로 진정한 평화를 재설계할 수 있다.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마음의 무장해제”를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 먼저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를 실행함으로써, 상대 역시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평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무기를 내려놓기 위한 단계적 과정

**“고통받는 인류를 위하여 종교가 해야 하는 본질적인 역할은
생각과 말까지도 무기로 삼고자 하는 유혹이 날로 자라나지 않게
막아내는 일입니다.”¹⁴⁾**

레오 교황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마음의 무장해제를 강조하며, 모든 인간이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절실한 성찰로부터만 평화가 가능하므로 죄라는 무한한 빛을 자비로이 탕감해주신 하느님처럼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해야 함을 역설하였다.¹⁵⁾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과 역사 안에서, 은연중에 상대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무기로 삼아 다시금 재무장하고 상대를 공격할 태세를 갖춘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꼬리를 물고 증폭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나 자신, 나의 사회, 그리고 나의 국

14) 레오 14세 교황. (2025).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제5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2026년 1월 1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향하여」 [내용출처 - <https://www.cbck.or.kr/Documents/Pope/20250606?gb=title&search=%EC%84%B8%EA%B3%84%20%ED%8F%89%ED%99%94%EC%9D%98%20%EB%82%A0>]

15) 프란치스코 교황. (2024). 위의 담화문, 8-10항.

가'만을 위한 상생할 수 없는 '이익'이 모든 가치에 우선함을 주장하고 정당화시키는 마음속의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 해제된 마음만이 참 평화의 통로를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내면적 성찰을 통한 마음의 무장해제는 타자와 평화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 이에 레오 14세 교황은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화의 원수들도 사랑한다.”¹⁶⁾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타자에 대한 사랑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다리를 놓을 사명을 지닌 교회 내 각 단체들이 다양한 연대를 통해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인간은 함께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통해 자아와 타자 그리고 평화의 주제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동등하게 서로를 환대하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주어질 때 자아를 제대로 알아가고, 타자를 이해하게 되어, 평화의 면을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 레오 14세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목 표어를 통해 화해와 일치를 강조하며 단절과 비난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경청하고 대화하기를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다.¹⁷⁾

분단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구체적인 평화의 여정을 마련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모두가 동등하게 대화하며 분열을 넘어 일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노드의 여정을 내면화하고 실현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의 장치를 마련하여 평등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론적 고민도 필요하다. 시노드 여정에서 고안된 '성령 안에서 대화' 방식을 통해 중간 중간에 묵상 시간을 마련하고 모래시계를 사용하여, 성령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위계와 폭력성을 넘어서는 대화방식을 확충해야 한다.¹⁸⁾ 또한 사회적 대화 방식을 접목하여 간단한 강의나 배움 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평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전하여 자극적인 선동에 호도되지 않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극심한 어둠은 다시 부활할 시기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이사 2,4-5)”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 위의 상처와 피로 물든 처참한 죽음에서 비롯되었듯이, 지금 이 세계의 극심한 고통과 비참함은 다시 부활을 향해 나아갈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16) 레오 14세 교황. (2025). 같은 담화문. (아우구스티노 「설교집」, 357, 1. 참조)

17) 레오 14세 교황. (2025). 평화가 모두와 함께: 레오 14세 교황의 가르침. 서울: 가톨릭출판사.

18)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성령 안에서 대화 관계와 소통(배포용)”(발행일: 2025.06.26.),

<https://cbck.or.kr/Pastor/Resources?no=20250313>

가장 큰 어둠의 시기가 동틀 새벽의 빛에 가장 가까운 시기이기에, 세속에서 강화된 내면의 무기라는 틀을 알아채고 자아의 갇힌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처절한 인식적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나'라는 이기적인 정체성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이타적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찰의 순간을 자꾸만 마주해야만 부활의 통로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밖으로 내쳐진 가장 약하고 가난한 양을 사랑한다. 또한 어느 누구라도 배제된 집단은 공동체 결속의 힘을 잃어버리기에, 우리 밖에 있는 양을 그리 선뜻 찾아 나섰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서만, '우리(We)'라는 틀 밖에 있는 '그들(They)' 혹은 '적(Enemy)'으로 불리던 양들을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빛'을 내면에 지닐 수 있다. 기존에 지닌 세상의 시선으로 서치라이트와 같이 강압적인 빛을 비추면, 양들의 눈을 부시게 하여 눈을 감거나 얼굴을 돌리게 하고 오히려 겁을 주어 더 멀리 쫓아낸다. 하지만 양들의 눈높이를 배려한 부드러운 빛은 스스럼없이 닿아, 서로를 만나게 하여 상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¹⁹⁾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밖에 있는 양들과 대치하는 분열을 넘어 서로에 대한 무기를 내려놓아 그리스도 안의 일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더디더라도 비폭력적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만, '우리'와 '그들'로 나누어 이득을 쟁기려는 세계의 기득권이 기획한 분열과 안보담론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간으로 세상에 온 예수가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일일이 만나고 찾아 나섰듯이, 우리 또한 평화를 매 순간의 일상과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실현하고 이를 더 큰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해나가야 한다. 서로 일상 속에서 무기를 내려놓으며 건설적인 평화의 관계를 모색하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영역에서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예수의 평화를 체험하는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2026년을 평화의 날들이 쌓여 이루어진 한 해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끝>

19) 손서정. (2026). 「'온전한 무장해제'를 통한 평화의 여정」. 2026년 제59차 가톨릭 세계평화의 날 교황 레오 14세 담화문 세미나(2026년 1월 10일) 토론문 중에서.